



보도 일시	2022. 12. 1.(목) 11:00	배포 일시	2022. 12. 1.(목) 09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장기전략국 미래전략과	책임자	과장 김명선 (044-215-4910)
		담당자	사무관 김도경 (dkim7258@korea.kr)

‘22년 제5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- 국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미래대응전략 논의 -

-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(STEPI)는 12.1(목) 오전 9시 30분에 ‘22년도 제5차 미래전략포럼*을 개최하였음(주최: 기재부, 주관: STEPI)

* 미래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'19년부터 신설되어 운영중

- 지난 1~4차 포럼*에 이어 금일 개최된 5차 포럼에서는 국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미래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음

* 제1차(3.31): 연구역량 강화, 제2차(4.28): 기술사업화 활성화
제3차(10.12) : 경제안보전략, 제4차(11.3) : 농업의 미래

- 먼저 박병원 STEPI 선임연구위원이 ‘글로벌 사회시스템 붕괴위험,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’를 주제로 발표하였음

- 박 위원은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했던 제도·조직 등이 많아지면서 사회 전체의 복잡성이 커졌고, 복잡성이 높아진 사회에서는 새로운 정책의 효과가 체감하고 문제해결 능력이 약화된다고 지적하였음

- 또한 현대 사회 시스템은 노동분업과 특화, 규모의 경제, 집단 지식 및 정보 교환 등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, 강한 상호연결성은 사회에 큰 편익을 주는 동시에 시스템에 내재된 취약성 때문에 새로운 위협에 상시 노출되고 있다고 진단하였음

- 박 위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 모두 복잡성 확대와 문제해결 능력 약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기존 상상을 뛰어넘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음

- 과거 세계 각국은 어려운 상황을 반전의 기회로 활용하여 오히려 역량이 강화된 사례*가 많았으며, 우리도 극단적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려면 사회적 신뢰 제고, 선제적 구조개혁, 의사결정 과정의 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는 능력(혁신)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

* (예시)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싱가포르가 독립했을 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으나 현재는 아시아 경제 중심 국가로 자리잡음

□ 다음으로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‘초불확실성 시대의 미래전략’을 주제로 발표하였음

- 서 교수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해야 할 극단적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며,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, 초연결화로 인한 전지구적 동기화*, 와해적 기술** 등장 등을 불확실성 증가의 원인으로 진단하였음

* 지구의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동시에 발생(예: 코로나)

** 완전히 새로운 기능이나 속성으로 기존 기술과 시장 등을 무력화시키는 급진적 혁신의 기술

- 우리나라에도 과거 IMF 금융위기, 코로나19 등 극단적 사건이 발생했으며, 향후에도 부동산 버블붕괴와 한국판 모기지론 사태, 북한상황 급변으로 인한 문제, 백두산 폭발, 중국 민주화 혁명과 소수민족 독립 요구 분출 등 다양한 극단적 사건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음
- 불확실성 시대에 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 발생 시 기민하게 최적의 해결 방안을 추진하는 능력과 위기·재난의 상시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회복력을 동시에 갖추어 필요가 있다며 “Agilience(Agile+ Resilience)” 역량*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음

*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역량.

□ 오늘 논의결과를 포함, 미래전략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국가미래 전략 수립에 참고할 계획임

※ 본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참가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,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.